

국 어 (해 설)

문 1. 정답 ④

- ① 덩굴 → 덩굴/넙굴(복수 표준어)
 눈두덩이/눈두덩(복수 표준어)
 놀이감 → 놀잇감
 놀잇감: 놀이 또는 아동 교육 현장 따위에서 활용되는 물건이나 재료.
 장난감: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여러 가지 물건.
 ② 윗어른 → 웃어른
 ③ 지리하다 → 지루하다
 ‘계면쩍다’는 ‘겸연쩍다’의 변한 말.

문 2. 정답 ②

- ‘낯섦’은 형용사 ‘낯설다’의 어간 ‘낯설-’에 명사형 전성어미 ‘-ㅅ’이 결합한 형태이다.
 ① ‘-기’: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
 ③ ‘-추-’: 사동의 뜻을 더하고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
 ④ ‘-답다’: ‘성질이나 특성이 있음’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.

문 3. 정답 ②

- (가): ‘술’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 [숑]으로 발음된다. 음절의 끝소리 규칙은 ㉠ 대치(교체)에 해당한다.
 (나): [숑하고]는 ‘ㄷ’과 ‘ㅎ’이 만나 ‘ㅌ’이 되는 자음 축약 현상에 의해 [소타고]로 발음된다.

문 4. 정답 ①

- ‘-을망정’은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고 뒤 절에 그와 대립되는 다른 사실을 이어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.
 ② ‘있을지라도’: ‘-을지라도’는 앞 절의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에 구애받지 않는 사실을 이어 말할 때에 쓰는 연결 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.
 ③ ‘예쁜 대신’: ‘대신’은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나 상태와 다르거나 그와 반대임을 나타내는 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써야 한다.
 ④ ‘들을지’: ‘-을지’는 추측에 대한 막연한 의문이 있는 채로 그것을 뒤 절의 사실이나 판단과 관련시키는데 쓰는 연결 어미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.

문 5. 정답 ②

- 국어의 형태적 특징이란 국어의 첨가어로서의 특징, 즉 조사, 어미, 접사 등에 대한 특징을 말한다.
 ①, ③, ④는 국어의 통사적(구문상) 특징이다.

문 6. 정답 ④

- ① 팸플릿
 ② 리더십, 소시지
 ③ 소파, 싱크대, 보디로션 슈퍼마켓, 스카우트

문 7. 정답 ③

- ① 열둘째 → 열두째: ‘열두 번째’의 의미일 때는 ‘열두째’를 써야 한다. ‘열둘째’는 ‘열두 개째’의 의미일 때 쓴다.
 ② 떨어먹는 → 털어먹는: ‘털어먹다’가 표준어이다.
 ④ 솟병아리 → 수평아리: ‘수평아리’가 표준어이다.

문 8. 정답 ①

- 상실(喪失 잃을 상, 잃을 실): 어떤 것이 아주 없어지거나 사라짐.
 ② 성장(成長 이룰 성, 길 장):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짐.
 성장(盛裝 성할 성, 꾸밀 장): 잘 차려입음. 또는 그런 차림.
 ③ 이상(異常 다를 이, 항상 상): 정상적인 상태와 다름.
 이상(異狀 다를 이, 형상 상): 평소와 다른 상태.
 ④ 해동(解凍 풀 해, 얼 동): 얼었던 것이 녹아서 풀림. 또는 그렇게 하게 함.
 해동(解冬 풀 해, 겨울 동): ‘동안거(승려들이 음력 10월 15일부터 이듬해 1월 15일까지 일정한 곳에 머물며 수도(修道)하는 일)’의 끝.

문 9. 정답 ② <보기>는 ‘묘사’ 방식이 쓰였다.

- ①은 ‘서사’, ③은 ‘유추’, ④는 ‘인과’ 방식이 쓰였다.

문 10. 정답 ③

- 미관식 구성이란 문단이나 글의 끝 부분에 중심 내용이 오는 산문 구성 방식이다. 이 글의 중심 내용은 ‘과학 기술에 대한 지나친 낙관적 전망은 위험하다.’이므로 ㄹ이 마지막에 와야 한다.

문 11. 정답 ①

- 개인은 자유를 극대화하려 할수록 고독감이나 소외감, 무력감이나 불안감 등에 노출되기 때문에(원인) 자유로부터의 도피를 감행한다.(결과)

문 12. 정답 ④

이청준의 『당신들의 천국』은 전라남도 고흥의 소록도를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.

문 13. 정답 ④

㉠~㉣에서는 이승과 저승 간의 거리감이 나타나지만 ㉡에서 화자는 삶과 죽음을 가르는 강이 아무리 넓다 할 지라도 인연의 바람은 그것을 뛰어넘어 불어 가고 올 것임을 확신한다.

문 14. 정답 ③

제시된 시조는 이개의 시조로 단종과 이별을 하고 나서 남몰래 애태우는 심정을 촛불에 감정이입을 하여 표현하였다. ③은 계랑의 시조로 배꽃이 비처럼 흠날릴 때의 이별의 정화, 낙엽 지는 가을날에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, 멀리 떨어져 있는 임과의 재회에 대한 염원 등을 여성의 섬세한 감각으로 그려냈다.

- ① 이조년의 '다정가'로 봄밤의 애상적 정서를 표현한 작품이다.
- ② 우탁의 시조로 늙음을 한탄하는 작품이다. '탄로가'라고도 한다.
- ④ 정철의 '훈민가' 중 한 수로 올바른 행동을 권유하는 작품이다.

문 15. 정답 ③

제시문은 초성이나 중성을 합칠 때에는 가로로 쓴다는 규정인 병서법(나란히 쓰기, 글바쓰기)에 해당한다.

- ① 상형: 훈민정음 초성과 중성 기본자의 제자원리이다. 초성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고, 중성은 천(天), 지(地), 인(人) 삼재(三才)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.
- ② 가획: 기본자에 획을 더해 글자를 만들었다는 훈민정음 초성의 제자원리이다.
- ④ 연서: 입술소리 아래에 'ㅇ'을 이어 쓰면 입술 가벼운 소리(순경음)를 만들 수 있다는 규정이다.(빙, 풍, 뭉, 땡)

문 16. 정답 ④

㉠은 '탈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몸을 엮다.'라는 의미이다. ㉣는 '어떤 조건이나 시간, 기회 등을 이용하다.'의 의미로 어떤 것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㉠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.

- ① 복이나 재주, 운명 따위를 선천적으로 지니다.
- ② 악기의 줄을 통기거나 건반을 눌러 소리를 내다.
- ③ 부끄럼이나 노여움 따위의 감정이나 간지럼 따위의 육체적 느낌을 쉽게 느끼다.

문 17. 정답 ②

오비이락: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뜻으로, 아무 관계도 없이 한 일이 공교롭게도 때가 같아 억울하게 의심을 받거나 난처한 위치에 서게 됨을 이르는 말.

- ① 금상첨화: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는 뜻으로, 좋은 일 위에 또 좋은 일이 더하여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
- ③ 고진감래: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,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.
- ④ 일거양득: 한 가지 일을 하여 두 가지 이익을 얻음.

문 18. 정답 ①

도청도설: 길에서 듣고 길에서 말한다는 뜻으로, 길거리에 퍼져 돌아다니는 뜬소문을 이르는 말.

- ② 심심상인: 말없이 마음과 마음으로 뜻을 전함.
- ③ 염화미소: 말로 통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.
- ④ 이심전심: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.

문 19. 정답 ②

'털을 뽑아 신을 삼는다.'는 '자신의 온 정성을 다하여 은혜를 꼭 갚겠다.'라는 속담이다.

문 20. 정답 ④

대수로이: 중요하게 여길 만한 정도로.